

# 100명의 한걸음으로 국기(國技) 기반 살리기 '온 힘'

## 지역 최대 숙원사업으로 부상

태권도의 성지(聖地), 무주군에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가속도를 밟고 있다. 정치권과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등 국내 우수 태권도 단체 등과 협약 체결로 더욱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무주군과 2만4,000여명의 군민들은 반드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무주군에 설립돼 세계 210개국 1억5,000만명이 수련하고 있는 한류의 원조인 태권도를 통해 한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는 각오다.

먼저 사관학교 무주 설립을 위한 출발선에 선 무주군과 군민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불을 지폈다.

무주군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부상한 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국민적 여론 조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무주군의 움직임을 살펴봤다.



### '서명운동'과 국내외 태권도 단체 후원으로 불 지폈다

무주군은 '1명의 100걸음'보다 100명의 한걸음이 더욱 소중하다'는 각오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무주군이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 전개 등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무주군청 민원봉사실을 비롯해 읍면사무소, 각급 기관 사무소에서 활발하게 서명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서명 운동은 코로나19의 방역과 예방,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비대면과 전자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무주군과 전북도청, 그리고 국기원의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서명이 가능해지면서 열기가 급속도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반사이익을 받을 국내의 태권도계와의 공조체제 구축으로 설립을 위한 큰 지원군을 얻었다.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 등 국내외의 우수 태권도 단체 수장들과의 잇따른 협약 체결로 앞으로의 행보에 순항이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3월 12일 국민의힘 전북동행의원 지역으로 무주를 방문한 유의동 국회의원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은 군 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며 "무주군이 요구한 연구용역비 3억원 반영과 당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혀 정치권의 든든한 지원도 따르고 있다.

이어 군은 법 국민적 역량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왕성한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 및 정치권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하는 한편 2022년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왕성한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동시에 태권도계와 우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무주군민과 공직자들도 사관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대내·외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국내외 태권도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야만 사관학교 설립에 동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사관학교, 왜 무주인가?

태권도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이자 올림픽 정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서명운동



반딧불기관장회의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브리핑

식 종목으로서 법률로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다.

"국기"란 그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즐겨 내려오는 대표적인 운동 혹은 기예를 말하는데 영국의 축구, 미국의 야구, 일본의 유도 등과 같은 경우다.

태권도는 현재 전 세계 210개국에서 1억5,000

만명이 국경과 언어, 피부색을 떠나 우리 말로 차렷, 경례!의 구호와 하나, 둘, 셋!을 외치면서 수련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한국 문화의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태권도는 가장 성공한 사례로써 진정한 한류(韓流)의 원조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런 태권도가 비랑 끌로 물리고 있다. 국

제 스포츠 무대에서 중국의 '봉후'와 일본의 '가라테'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올림픽 현장에는 하나의 무예 종목만을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중국은 막강한 국력과 거대 자본을 앞세워 태권도를 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탈락시키고 우수를 대신 채택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노골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일본은 이런 규정을 깨고 올해 도쿄 올림픽에 한해서지만 가라테가 정식 종목으로 체

상품화하겠다는 원대한 국가적 목표를 세우고 태권도 문화 콘텐츠화를 100대 국정 과제 선정하는 한편 올해 발표된 제 5차 국토 종합계획에 무주를 태권시티로 조성해서 국제 성지화를 완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최적의 대안이 바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를 설립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의 기본 구상과 과제

지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사관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를 진행하여 설립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낸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주군이 구상하고 있는 사관학교는 전 세계에서 입학생을 모집하고 졸업생에게는 태권도 사범 자격증을 수여해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태권도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수련생들의 종주국 방문을 유도하는 태권도 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전문 교육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0위로 이런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사관학교로 대표되는 '국제 학교' 좁은 하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속도로 5Km 건설 비용은 대략 2천억원선. 고속도로 5Km 건설 비용만으로 한류의 원조라고 할 태권도가 세계로 뻗어나 갈 '태권도 문화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부터 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예비) 타당성 조사가 선행돼 사업 규모와 부지 확정, 총사업비 등을 결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사관학교 설치에 관한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태권도 진흥법) 돼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사관학교 부지는 바로 태권도인 민자지구 주변에 143만4,940㎡가 마련돼 있다. 앞으로 사관학교 설립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태권도 진흥재단, 대한 태권도 협회와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힘을 모아 나가면서 범 국민추진위원회 구성과 함께 디큐멘터리 제작 지원과 언론홍보활동, 그리고 여론주도층 상대로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기자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시작한 100만인 서명운동, 올해부터 전자서명 가능해지면서 열기 급속도로 확산돼가

세계태권도연맹·국기원 등 국내외 태권도계와 공조 구축

'태권도 문화 콘텐츠화' 정부 국정과제 최적의 대안

기본계획 수립부터 국회 법 제정까지 과제 '산적'

택했다. 더구나 2028년 LA올림픽부터는 중국의 우수, 가라테, 주짓수 등과 정식 종목을 놓고 경쟁 관계에 놓인 절박한 상황이다.

국내의 태권도의 환경과 여건도 암울하기만 하다. 국내 대학의 태권도 학과 개설 수와 입학 정원은 2009년 60개 대학에 3,168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28개 대학에 1,180명 수준으로 불과 10년 사이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10년 이내에 국내 대학에서 태권도의 기반이 완전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태권도를 21세기 국가 전략

## ▶ 황인홍 군수의 포부



## 태권도 성지에 설립토록 발품 팔 것

황인홍 무주군수는 태권도인의 정신과 가치를 승화시킬 태권도원이 있는 무주에 반드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설립되도록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다.

황 군수는 "태권도가 글로벌 스포츠로 격상되었으면서도 국내외적으로 스포츠 무대에서 위축되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다"면서 태권도 성지로 거듭나고 있는 태권도원이 바늘이러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실과 같은 것으로 바늘과 실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진정한 태권도 성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교육적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면서 "그게 바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진정한 태권도 성지 완성 국가 차원 교육적 투자 확대 지역 발전 성장동력으로"

설립이다. 국가전략 산업화·상품화와 무주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군수는 "사관학교 설립은 우리나라가 종주국이자 한민족의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인 태권도의 위상을 수천년 이어갈 국가적 대사(大事)다"라며 "무주군에 사관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발품을 팔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보였다.



국기원과 양해각서 체결